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도덕 · 윤리

수험 번호 : (　　)　　성　명 : (　　)

제1차 시험	3교시 전공B	11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도덕 수업의 한 장면이다. 밑줄 친 ㉠~㉣ 중 옳지 <u>않은</u> 것 2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2점]


교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눌 사상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A

지눌은 윤회(輪廻)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인 ㉠ <u>불성(佛性)</u>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학생B

지눌은 깨달음[道]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중 ㉡ <u>돈오(頓悟)</u>는 홀연히 선지식(善知識)의 안내로 바른 길에 들어가자마자 수행에 앞서 단박에 깨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학생C

지눌은 ㉢ <u>돈수(頓修)</u>에 대해 오랜 기간 익힌 습기(習氣)를 갑자기 모두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점차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모든 기관을 갖춘 것은 어른과 다르지 않지만, 그 힘이 충분하지 못하여 시간이 지나야 어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D

지눌은 ㉣ <u>자성정혜(自性定慧)</u>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 수행은 깨친 후에도 쉽게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자질을 가진 중생이 선정〔定〕과 지혜〔慧〕를 임시적인 방편으로 빌려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 다음은 메타 윤리학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도덕적 명제들은 일상적인 경험적 세계의 사실들을 기술하며 감각 경험과 과학을 통해서 알려지고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도덕 판단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선하다.'라는 판단은 '어떤 행동이 쾌락을 극대화한다.'라는 사실의 진술이다. 이 이론은 일종의 (㉠) 이론이다. 무어(G. E. Moore)는 '선/좋음'에 대해 제시된 정의는 예외 없이 오류를 범한다는 논증을 들어 이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은/는 도덕 판단을 사실 판단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무어의 논증에 따르면, '선한 행동은 선하다.'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판단이지만, '쾌락을 극대화하는 행동은 선하다.'라는 판단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선'을 '쾌락의 극대화'로 정의할 수 있으려면 '쾌락을 극대화하는 행동이 선한가?'라는 물음이 (㉡)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쾌락을 극대화하는 행동이 선한가?'라는 물음은 '아니요.'라고 답할 여지가 있는 (㉡)이기 때문에, '선'을 '쾌락의 극대화'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가)는 도덕교육 이론가의 주장이고, (나)는 도덕 교사의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그리고 (다), (라)는 학생들의 모둠별 탐구 보고서 발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도덕적 인지,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은 훌륭한 인격의 구성 요소이다. 공립학교의 도덕 내용을 규정하는 자연법적 도덕 법칙은 존중과 책임이라는 2가지 가치이다. 존중과 책임의 가치는 건강한 개인 발달을 위해, 서로가 배려하는 관계를 위해, (㉠)을/를 위해,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필요하다. … (중략) … 책임은 존중의 확대이다. 존중은 '남을 해치지 마라.'라고 말하지만 책임은 '남을 도와줘라.'라고 말한다. 이러한 책임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권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권리가 도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권리와 책임이 (㉡).
(나)	이 수업은 모둠별로 존중의 3가지 주요 형식인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 '(㉣)'을/를 탐구하여, 그 탐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존중과 책임에 대한 내용은 (가)를 주장한 도덕교육 이론가의 입장을 따른다.
(다)	 학생 1 우리 모둠은 존중의 3가지 주요 형식 중 하나인 '(㉢)'을/를 탐구했습니다. 우리 모둠은 치료소 등을 탐방하여 청소년 마약 중독 및 알코올 중독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탈 행동이 '(㉢)'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	 학생 2 우리 모둠은 존중의 3가지 주요 형식 중 하나인 '(㉣)'을/를 탐구했습니다. 우리 모둠은 늘어가는 동물 학대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동물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의존하는 기반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런 범죄는 '(㉣)'을/를 실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본래적 가치'를 사용하여 서술할 것.

4. 갑, 을은 도덕교육 이론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을 완전한 내용 중립의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justice) 그 자체에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정의는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지 규정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도덕발달 단계 중 6단계의 형식이 (㉠)(으)로서의 정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 어떤 사람들이 '유용성(utility)이나 선의(benevolence)와 같은 정의 이외의 원리들이 5단계를 초월하는 6단계의 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원리들은 6단계의 원리로서 작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 정의 원리만이 적절한 보편적, 규정적 원리가 될 수 있다.
을	'하인즈 딜레마'에 대한 11세 남아 A와 11세 여아 B의 인터뷰를 분석해 보면, A는 '하인즈 딜레마'가 방정식과 비슷하여 합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해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A와 달리 B는 '하인즈 딜레마'를 인간 활동에 적용되는 추상적인 수학 문제로 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 개입된 (㉢)(으)로 본다. 따라서 하인즈의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필요로 할 것이며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에 대해 걱정할 것이 예견되므로, B는 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즉, B는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진리의 방법을 인식하고 있고, (㉣)의 활동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덕적 갈등'을 사용하여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사용하여 서술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 다음은 도덕 심리학자 갑과 도덕 교사 을의 가상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 인간은 개인의 내적 요인들과 행동, 그리고 환경이라는 3가지 결정요인의 상호 인과관계를 포함하는 상호의존적 인과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인간은 직접적인 강화뿐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도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나 행동과 관련된 것 중 하나가 자아효능감입니다.

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해 왔어요. 자아효능감에 대한 선생님의 이론을 적용해 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갑 : 네, 그렇다면 자아효능감 형성의 근원들에서 적합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 잘하는 다른 학생을 잘 관찰하게 하는 '대리적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을/를 적용해 보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같이 의미 있는 사람들이 하는 '(㉡)'도 학생들의 자아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활기찬 '생리적 및 정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인사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을 :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생님께서는 자아효능감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주로 설명해 주셨는데, 자아효능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갑 :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회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효능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아효능감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천', '성취'를 사용하여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그 사례를 '인사'를 사용하여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할 것.

6. 갑, 을은 동양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 마음[心] 밖에 따로 사물[物]이 없으니, 가령 내 마음에서 부모에게 효(孝)를 행하려는 생각이 일어나면 부모에게 효를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사물이며, 마음이 사물에 있으면 이치[理]가 된다. 따라서 내 마음은 곧 이치이고 ㉠ 허령하여 밝게 지각하는 것이다. ○ 내 부모를 섬기는 일은 오직 내 마음의 (㉡)와/과 (㉢) 사이를 강구할 뿐이다. 예컨대, 겨울에 부모를 따뜻하게 해 드리는 것을 강구할 때, 내 마음이 효를 다하는 사이 (㉡)이/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뒤섞여 있는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이/가 없는 순수한 (㉢)(이)라면 부모를 따뜻하게 해 드리는 도리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을	○ 마음을 다하는 것은 본성[性]을 아는 것이며, 본성을 아는 것은 ㉣ 이치를 궁구하는 것인데, 모름지기 효는 그 효를 지극히 하고 인(仁)은 그 인을 지극히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성은 곧 이치이고 하늘이니, 마음을 다하려면 먼저 그 본성을 알아야 한다. ○ 마음의 (㉢)이/가 밝아지려면 스스로 강학을 멈춰서는 안 된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밝지만 보배로운 구슬이 마치 혼탁한 물속에 빠져서 그 밝음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혼탁함이 제거된 물속에서 구슬은 저절로 예전같이 밝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에 가려졌음을 알면 곧 (㉢)이/가 밝아지게 된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갑의 공부법을 서술할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을의 공부법을 서술할 것.

7. 갑, 을은 한국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하늘이 사람에게 명(命)을 내려 줌에 있어, 기(氣)가 아니면 이(理)는 붙을 데가 없고, 마음[心]이 아니면 이와 기는 붙을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고 또 신령하여, 이와 기의 집이 된다. 따라서 이(理)는 사덕(四德)의 이(理)이면서 오상(五常)이 되고, 기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기이면서 기질(氣質)이 되니, 사람의 마음에 갖춰진 것은 모두 하늘에 근본을 둔 것이다. 하지만 오상은 순선하고 악이 없어서 그 발한 바가 사단(四端)으로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기질은 (㉠)이/가 아니어서 그 발한 바가 칠정(七情)이 되고 사악함으로 흐르기 쉽다.
을	사람의 타고난 (㉡)에는 본래 선과 악의 일정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공자는 "성(性)은 서로 가까우나, 습관은 서로 멀다."라고 하였고, 또한 "상지(上智)와 하우(下愚)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다만 이 성은 기가 어두우면서 어지럽기 때문에 미발(未發)의 중(中)이라고 이를 수 없다. … (중략) … 이와 기의 오묘함[理氣之妙]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다. 무릇 이(理)의 근원은 하나일 뿐이고, 기의 근원도 하나일 뿐이다. 기가 유행(流行)하여 고르지 못하면 이도 유행하여 고르지 못하니, 기는 이와 떨어질 수 없고 이도 기와 떨어질 수 없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 ㉡의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사단', '칠정'을 사용하여 각각 서술할 것.

8. 다음은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완전한 선의지는 선의 객관적인 법칙들 아래에 서 있을 터이지만, 그로 인해 그것이 법칙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신적인 의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대체가 신성한 의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타당하지가 않다. ㉠ 여기에는 당위가 있을 바른 자리가 없다. 명령은 ㉡ 의욕 일반의 객관적 ㉢ 법칙과 이런저런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주관적 불완전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정식일 따름이다.
○ 모든 명령은 정언명령이거나 ㉣ 가언명령이다. 정언명령은 한 행위를 그 자체로서,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그런 명령이다. … (중략) … 우리는 정언명령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명령의 현실성이 경험 속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명령의 가능성을 확립하지 않고 단지 설명만 해도 되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
○ (㉥)(으)로부터의 행위는 경향성의 영향 및 그와 함께 의지의 일체 대상을 전적으로 격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의지에 대해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 주관적으로는 이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중략)… 단적으로 선하지 않은 의지가 자율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구속성이 된다. 그러므로 이 구속성은 신성한 존재자와 관계할 수 없다. 이 구속성에서 비롯한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을 (㉥)(이)라고 일컫는다.

<작성 방법>

○ 밑줄 친 ㉠의 이유를 밑줄 친 ㉡, ㉢을 사용하여 서술할 것.
○ 밑줄 친 ㉣의 특징을 '목적', '수단'을 사용하여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9. 갑, 을은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복이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 입법자에게 의존하는 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이 각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그것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와/과 (㉡)뿐이다. … (중략) … (㉠)와/과 (㉡)이/가 흘러나오는 원천은 4가지로 구별된다. 그것들은 물리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원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들 각각에 속하는 (㉠)와/과 (㉡)이/가 행위의 어떤 법칙이나 규칙에 구속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 제재라고 부를 수 있다.
을	공리주의 도덕을 위한 감정의 자연적 토대가 없다면, 설령 교육에 의해 양심과 공리주의 사이에 강한 연상 관계가 형성된다고 해도 그와 같은 연상 관계는 분석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자연적 감정의 토대가 존재한다. 그리고 일단 일반 행복이 윤리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이것은 공리주의 도덕의 강점이 된다. 이런 굳건한 토대는 바로 인류의 (㉣)(이)다. 동료 인간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인 (㉣)은/는 이미 인간 본성 속에서 강력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 (중략) … 이러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발달시킨 사람은 그의 동료 인간들을 행복의 수단을 두고 자신과 다투는 경쟁자로 여길 수 없게 된다.

<작성 방법>

- ○ 괄호 안의 ㉠,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 갑의 입장에서 밑줄 친 ㉢이 필요한 이유를 '자기 이익', '공리의 원리'를 사용하여 서술할 것.
- ○ 을의 입장에서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갖는 특징을 밑줄 친 ㉢을 사용하여 서술할 것.

10. 갑, 을은 서양 현대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지가 반영된 법에 의해 스스로를 통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적 자유를 내세우는데, 이는 (㉠)이/가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에서 파생된 급진적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상가들의 입장을 따라 정치적 자유가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자의에 예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에만 종속된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전체를 규율하는 규칙들에 대해 인정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는 ㉡ 자치적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을	다른 사람이 나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는 것이 통상의 어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 자유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유의 영역은 넓어지는 것이다. (㉢)은/는 비록 유일한 선은 아니지만 강제가 나쁘다는 점과 대칭되는 측면에서 좋다. 이 의미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인데, 그것의 주된 관심은 통제의 근원이 아닌 통제의 범위에 있다. "나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논리적으로 다르다.

<작성 방법>

-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 밑줄 친 ㉡에 대해 을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서술할 것.
-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부'를 사용하여 서술할 것.

11. 다음은 서양 근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곳에서는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전쟁상태에서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평화를 추구하라.'라는 요지의 기본 자연법이 등장하며, 평화의 조건으로서 '인간은 평화와 자기 방어가 보장되는 한, (㉠).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할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제2자연법이 도출된다.
> ○ 비참한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만인이 만인과 상호 ㉡ 신의계약(covenant)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된다.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된 것을 코먼웰스(Commonwealth), 라틴어로는 키위타스(Civitas)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곧 위대한 리바이어던이자 지상의 신(神)의 탄생이다. 그리고 이 인격을 지닌 자는 (㉢)(으)로 불리는데, 신의계약은 그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만인 상호 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가 신의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작성 방법>

>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할 경우, ~해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서술할 것.
> ○ 밑줄 친 ㉡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념'의 명칭을 쓸 것.
>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수고하셨습니다.>